


충청광장 

道廳이전 정략적 이용 안돼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을 정치적으로 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치'는 민의를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밝은 정치이면 좋겠지만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동원하여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될 일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어두운 정치인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는 지금 민주화 시대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도 10년이 지났다. 이제 우리 사회도 어두운 정치에서 벗어나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다고 본다.

현재 충남도청 이전은 200만 충남도민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지난 1월26일 6곳의 평가대상지가 발표되었고 이제 최종 평가 선정 단계만을 남겨놓고 있다. 필자는 최근 도청 이전 사업에



한 필 원

한남대학교 건축학부교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충남의 가장 큰 현안인 이 중요한 사업도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오는 5월 31일 있을 지방선거에서 도청 이전 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도청을 유치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도청 이전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우려가 더욱 커

진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어두운 정치의 시각이 남아있을 지 모른다는 걱정이 드는 것이다.

물론 충남도청 이전을 좁은 시각에서 보면 득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도청을 유치하는 지역에서는 얻을 것이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남이라는 전체를 놓고 볼 때 도청 이전은 모두에게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값진 열매를 안겨주는 좋은 일이다.

도청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하여 머지않아 새로운 도청이 세워지게 되면 그것은 충남, 나아가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밝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얻어진 충남도민의 자신감 역시 도청 이전에 따른 효율성 못지않은 큰 수확일 터이다.